

2023년 11월 30일 공보 2023-11-24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3년 11월 30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박충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 경제지표

		22.4/4	23.1/4	2/4	3/4	23.7월	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6	2.2	2.1	5.2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0.3	1.1	0.1	1.7	0.6	0.7	0.9	-0.1
	산업생산 ¹⁾ (전기비, %)	-0.6	-0.1	0.2	0.5	0.9	0.0	0.1	-0.6
	ISM제조업 ²⁾ (기준=50)	49.1	47.1	46.7	47.7	46.4	47.6	49.0	46.7
	실업률 ¹⁾ (%)	3.6	3.5	3.6	3.7	3.5	3.8	3.8	3.9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94.8	96.6	66.7	60.9	23.6	16.5	29.7	15.0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7.1	5.8	4.0	3.5	3.2	3.7	3.7	3.2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6.0	5.6	5.2	4.4	4.7	4.3	4.1	4.0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1	0.2	0.6	-0.2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1.2	-0.1	0.0	-0.4	-0.1	-0.7	-0.3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1	-1.2	-1.2	-1.2	-1.3	0.6	-1.1	..
	제조업PMI ²⁾ (기준=50)	47.1	48.2	44.7	43.2	42.7	43.5	43.4	43.1
	실업률 ¹⁾ (%)	6.6	6.6	6.5	6.5	6.5	6.4	6.5	..
	수출 ^{1,3)} (전기비, %)	0.4	-1.9	-1.9	-0.9	-1.7	1.2	-0.5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0.0	8.0	6.2	5.0	5.3	5.2	4.3	2.9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1	5.6	5.5	5.1	5.5	5.3	4.5	4.2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2	3.7	4.5	-2.1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1.2	2.4	0.5	2.5	2.2	0.2	0.4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7	-1.8	1.4	-1.2	-1.8	-0.7	0.5	..
	제조업PMI ²⁾ (기준=50)	49.5	48.6	50.0	49.2	49.6	49.6	48.5	48.7
	수출 ¹⁾ (전기비, %)	0.5	-5.9	2.3	4.5	2.0	-1.6	7.1	-1.2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8	3.6	3.3	3.2	3.3	3.2	3.0	3.3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5	2.1	2.6	2.7	2.7	2.7	2.6	2.7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2.9	4.5	6.3	4.9	-	-	-	-
중국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2.7	5.8	10.7	4.2	2.5	4.6	5.5	7.6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8	3.0	4.5	4.2	3.7	4.5	4.5	4.6
	제조업PMI ²⁾ (기준=50)	48.1	51.5	49.0	49.7	49.3	49.7	50.2	49.5
	수출(전년동기비, %)	-8.5	-1.7	-4.6	-9.6	-14.1	-8.4	-6.1	-6.4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8	1.3	0.1	-0.1	-0.3	0.1	0.0	-0.2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1	-1.6	-4.5	-3.3	-4.4	-3.0	-2.5	-2.6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0.0	-2.2	-2.9	-4.7	-4.1	-5.3	-4.5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균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3.7월	8월	9월	10.18일	10월	11.29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88	4.86	5.04	5.22	5.09	4.65
	미국(10년물)	3.96	4.11	4.57	4.91	4.93	4.26
	독일(10년물)	2.49	2.47	2.84	2.92	2.81	2.43
	영국(10년물)	4.31	4.36	4.44	4.66	4.51	4.10
환율 ¹⁾	달러인덱스	101.9	103.6	106.2	106.6	106.7	102.8
	신흥시장국 ²⁾	48.9	48.0	47.0	46.3	46.9	48.1
	엔/달러	142.3	145.5	149.4	149.9	151.6	147.2
	위안/달러	7.15	7.29	7.30	7.32	7.32	7.13
주가 ¹⁾³⁾	전세계	707.1	686.2	656.8	655.8	636.7	692.1
	선진국	3,064.3	2,986.0	2,853.2	2,851.9	2,768.6	3,013.9
	신흥시장국	1,046.9	980.3	952.8	943.1	915.2	983.0
VIX ¹⁾		13.6	13.6	17.5	19.2	18.1	13.0
CDS프리미엄 ^{1)(bp)}	신흥시장국	191.0	201.7	226.2	240.8	228.3	186.4
	중국	53.4	75.5	82.5	82.7	81.7	58.8
	한국	25.7	32.5	34.4	39.6	42.6	28.3
유가 ¹⁾⁴⁾ (달러/배럴)	WTI	81.8	83.6	90.8	88.3	81.0	77.9
	Brent	85.6	87.4	96.3	93.1	88.5	82.4
	Dubai	85.6	87.2	92.9	93.8	86.7	82.9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100.5	91.6	-39.5	-118.0 ⁵⁾	-185.8	-33.1 ⁶⁾

주: 1) 기말 기준
4) 현물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5) 9.28~10.18일 기준

3) MSCI 기준
6) 11.2~11.22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1	2022	22.4/4	23.1/4	2/4	3/4	23.8월	9월	10월 ⁶⁾
GDP 성장률 ¹⁾	4.3	2.6	-0.3	0.3	0.6	0.6	-	-	-
(민간소비)	3.6	4.1	-0.5	0.6	-0.1	0.3	-	-	-
(설비투자)	9.3	-0.9	2.4	-5.0	0.5	-2.7	-	-	-
(건설투자)	-1.6	-2.8	1.3	1.3	-0.8	2.2	-	-	-
소매판매액지수 ²⁾	5.8	-0.3	-1.4	1.1	-0.3	-2.6	-0.3	0.1	-0.8
설비투자지수 ²⁾	9.6	3.3	-0.2	-8.8	1.3	-3.5	4.1	8.7	-3.3
건설기성액 ²⁾	-6.7	2.7	4.9	4.6	-0.8	1.0	2.5	0.2	0.7
수출(통관) ³⁾	25.7	6.1	-10.0	-12.8	-12.0	-9.7	-8.1	-4.4	5.1
- 일평균 ³⁾	(25.7)	(6.3)	(-10.6)	(-16.0)	(-10.1)	(-9.0)	(-8.1)	(-2.1)	(7.6)
제조업생산지수 ²⁾	8.4	1.4	-6.4	-0.9	3.3	1.8	5.3	1.9	-3.5
서비스업생산지수 ²⁾	5.0	6.7	0.2	1.2	-0.3	0.7	0.2	0.5	-0.9
소비자심리지수 ⁴⁾	103.4	95.7	88.6	91.0	97.9	102.0	103.1	99.7	98.1 [97.2]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92	81	72	66	72	69	67	68	69 [70]
취업자수 증감 ³⁾⁴⁾	36.9	81.6	60.4	39.7	34.6	26.3	26.8	30.9	34.6
고용률(원계열)	60.5	62.1	62.3	61.2	63.2	63.2	63.1	63.2	63.3
실업률(원계열)	3.7	2.9	2.6	3.2	2.7	2.3	2.0	2.3	2.1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6) []내는 23.11월

[물 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0월중 3.8%로 높아졌지만 균원물가 상승률은 3.2%로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를 나타내겠으며,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전망된다(8월 전망치 3.5% 및 2.4%). 균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은 각각 3.5% 및 2.3%로 예상된다(8월 전망치 3.4% 및 2.1%).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2.4/4	23.1/4	2/4	3/4	23.8월	9월	10월 ⁴⁾
소비자물가 ¹⁾	5.3 (0.4)	4.7 (1.1)	3.2 (0.6)	3.1 (1.0)	3.4 (1.0)	3.7 (0.6)	3.8 (0.3)
▪ 농축수산물	1.9	1.7	0.3	2.0	2.7	3.7	7.3
▪ 공업제품	6.1	4.7	1.3	2.0	2.6	3.4	3.5
(석유류)	7.6	-4.1	-20.0	-14.5	-11.0	-4.9	-1.3
(석유류 제외)	5.9	6.1	5.3	4.9	4.9	4.8	4.3
▪ 전기·수도·가스	23.1	28.4	24.3	20.4	21.1	19.1	9.6
▪ 서비스	4.1	3.8	3.6	3.0	3.0	2.9	3.0
(공공서비스)	0.8	1.0	1.0	1.6	1.7	1.8	2.2
(개인서비스)	6.2	5.8	5.6	4.4	4.3	4.2	4.1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4.2	4.0	3.8	3.3	3.3	3.3	3.2
(관리물가 ²⁾ 제외)	5.0	4.7	4.3	3.6	3.6	3.5	3.4
▪ 농산물·석유류 제외	4.8	4.9	4.3	3.9	3.9	3.8	3.6
기대인플레이션율 ³⁾	4.1	3.9	3.6	3.3	3.3	3.3	3.4 [3.4]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내는 23.11월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었다.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3.7월	8월	9월	10.18일	10월	11.29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68	3.71	3.88	4.03	4.09	3.55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76	3.82	4.03	4.29	4.33	3.64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58	3.56	3.63	3.63	3.63	3.59
CP금리 ¹⁾²⁾ (91일물, %)	4.03	4.03	4.08	4.20	4.36	4.36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4.47	4.48	4.65	4.83	4.91	4.29
(3년, BBB-, %)	10.87	10.90	11.06	11.23	11.29	10.73
KOSPI ¹⁾	2,633	2,556	2,465	2,463	2,278	2,520
원/달러 환율 ¹⁾	1,275	1,322	1,349	1,350	1,351	1,290
원/100엔 환율 ¹⁾	900	905	905	902	899	877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0.8	-0.8	-2.3	-1.3 ⁴⁾	-3.4	4.0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10.1~18일중	5) 11.1~29일중					

-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2.4/4	23.1/4	2/4	3/4	23.7월	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4.9	19.0	20.8	28.2	8.7	8.2	11.3	8.1
▪ 대기업	9.7	7.6	8.9	11.6	3.8	2.9	4.9	4.3
▪ 중소기업	5.2	11.3	11.9	16.6	4.9	5.2	6.4	3.8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1.4	-8.1	12.3	17.6	5.9	6.9	4.8	6.8
▪ 주택담보대출 ¹⁾	5.3	2.0	14.0	19.0	5.9	7.0	6.1	5.8
▪ 기타대출 ²⁾	-6.8	-10.0	-1.7	-1.4	-0.0	-0.1	-1.3	1.0
주택 매매가격 ³⁾ (%)	-4.1	-3.4	-0.7	0.4	0.0	0.2	0.3	0.2
▪ 수도권 ³⁾⁴⁾	-5.3	-4.1	-0.6	0.9	0.2	0.3	0.4	0.3
(서울) ³⁾	-4.1	-2.6	-0.4	0.8	0.1	0.3	0.3	0.3
▪ 지방 ³⁾⁵⁾	-3.0	-2.7	-0.8	0.0	-0.1	0.0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 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